

너는 시냇가에

*반주음원QR



1.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2.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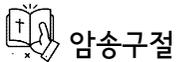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을 뿌리 내리고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Copyright (C) 박은호.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8)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트랙터

가정예배문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민수기 17:1~13)



1 함께 찬양하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 570장)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날 인도하여 주신다
-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반주음원QR



2 함께 본문 읽기

민수기 21:4~9

-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 다본즉 모두 살더라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2000년 7월 이지선 씨는 대학 4학년 때 음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리를 제외한 전신에 55%,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나긴 했지만 극심한 통증과 수 없는 수술 속에서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니 감사할 거리가 하나씩 생각났습니다. 비록 심하게 다친 손이지만 손가락을 잡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했고, 단추를 잠글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발은 안 다쳐서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여정은 마침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한동대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게 되었고, 수감자 부모를 둔 자녀들을 돕게 되었으며, 화상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 수 있을지를 연구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더 캄캄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절망하던 시간이 있었다. 돌아보니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캄캄한 곳에 가만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락한 오늘을 가마로 살아내는 것이 터널을 통과하는 지혜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백성이 □□□과 □□를 향하여 □□하
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 □
도 없고 □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
□ □□을 싫어하노라 하매

②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을 만들
어 □□ 위에 매달아라 □□ □마다 그것
을 □□ 살리라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예전에는 감사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새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뀐 적이 있었다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② 불평과 불신에서 벗어나 긍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보고 나누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였지만 에돔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남쪽 길로 가야 했기에 다시금 불평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불평했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마저 멸시하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표출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받고 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과 똑같은 모형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이는 놋뱀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불평과 불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금 긍정하고 신뢰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야 길과 같은 척박한 인생길에서도 언제나 저희 가정을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며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보며 긍정과 신뢰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